

## 국어 행동강령 총정리

이상적 시간관리: 화작13m(8:40~8:53) 소설15m(8:53~9:08) 시12m(9:08~9:20)

독서35m (9:20~9:55) omr 및 검토 5m (9:55~10:00)

문풀순서:화작-고전소설-현대소설-현대시(3문제짜리:고전시가도 가능)-고전시가+수필 복합갈래-독서론-인문지문(가+나)-사회지문-과학기술지문  
(독서문풀순서는 난이도에따라 달라질수있음)

예외:내가 경제, 물리화학지문에서 약세를 보이니 만약에 파본검사때 이런지문이 나온다면

화작-고전소설-현대소설-독서(동일)-복합갈래 6문제세트-단일갈래 3문제세트 이 순서로 풀이 하기.(시간분배는 동일하게)

시간 남았을때 행동강령

1.화작에서 못푼문제 or 헷갈린 문제(없다면 작문 45번)체크하기

2.문학에서 근거 확실하지않는데 별표치고 넘긴 문제들

3.독서 보기 3점짜리 문제 확실하게 풀었나 체크

4.답이 1,2번이고 내가 자신있게 찍고 넘긴문제들

5.다했는데도 시간이 남았다면 쭉 재검토하면서 omr확인

-시험운용 대원칙-

1.답이 확실하면 무조건 선지스킵한다

2.화작에서든, 문학에서든 어려운문제가 나올수 있다 내가 못풀면 아무도 못푼다는 마인드로 과감하게 답 안나오면 별표치고 넘기자

3.각 영역의 행동강령은 서로 교차되어 적용될수있기 때문에 너무 틀에박혀서 이 영역에서 이렇게 해야해!라는 강박 갖지 말기.

4.행동강령을 아무리 자세하게 세우더라도 분명 시험에서는 또 다른변수가 분명 등장한다. 당황하지말고 내 노력을 믿고 자신있게 풀자(어차피 계획대로 훌려가지않는다)

5.어려운시험이라고 느껴지는순간 오히려 속도내기 22,24같이 매우 어려운 시험은 한바퀴 일단 돌면 1등급이 확보된다. 반대로 쉬운시험이라고 생각되면 오히려 속도 줄이고 실수하지 않게 천천히 푼다.

6.시험 중 멘탈붕괴 절대금지(3모) 지문별 별개의 시험이라고 생각하자

7.무조건 옳은것 고르는 문제는 0, 틀린것 고르는 문제는 X 크게 표시해놓고 들어가기.★★★★★-실모풀때 실수잦음

8.시험 들어가기전에 심호흡 크게하고나서 시작하기

9.만약에 각영역 들어갈때 계획한 시간보다 지체되었을경우 앞에푼거 다맞았다고 생각하고 선지스킵으로 시간단축 빡세게 하기

10.문제풀때 그 문제에만 쭉 집중하기 뒤에문제 펼력거리면 될것도 안된다.

11.시험보다가 아 망했다 생각들어도 빠르게 부정하고 자기세뇌하기

-화작-(min 12m max 15m):선지 끊어읽으면서 꼼꼼하게 보고 무조건 한번에 선지판단 끝내기

마인드:시험의 첫 스타트이다보니 긴장도가 다른영역보다 훨씬 심할것이다. 마음 편하게 먹고 내가 못풀면 아무도 못푼다는 마인드로 과감함이 중요함+생각보다 시간이 널널하다 제발 선지 빠르게 읽고 마음 급해지는 순간 템포 꼬이기 시작하니 절대 조급해하지 않기 15분 걸려도 괜찮다

화작 풀때는 무조건 문제 먼저보고 무엇을 중점적으로 읽어야할지 마리 파악하기

1.35~37번 화법세트

35번은 읽으면서 풀기, 적절한것 적절하지 않은것 주의하여 선택하기

35번 풀때 괄호 안에 특이한 화법(비언어적,준언어적)이 등장한다면 바로 내려가서 선지 확인하기

36번 자료제시형으로 나오면 읽으면서 연결해놓기, 자료의 목적과 용도 확인해서 틀린선지 재끼기

37번 반응 문제 선지랑 바로바로 연결해서 풀기

2.38~42 화법과작문 혼합세트-무조건 내용요약하면서 읽기

만약에 토론이나 토의가 본문으로 등장했을경우 사회자나 학생1 관련 문제가 나왔는지 가장먼저 확인하고 만약에 있다면 옆에 크게 1,2,3,4,5 넘버링하기

42번 작문문제 조건 번호붙이고 선지에 대입하면서 조건 부합하는지 체크하기

요즘 40번에서 시간을 잡아먹게 하거나 어렵게 출제하는 경향이 있음, (가),(나)지문 읽을때 무조건 두지문 연결해서 읽기 따로따로 읽으면 선지,가지문,나지문 셋다 확인해야한다

(가)읽고 (가)지문에 해당하는 문제 풀고, (나)읽고 (나)지문에 해당하는 문제풀기

3.43~45 작문세트

똑같이 작문문제 나오면 번호 붙이고, 조건에 넘버링하여 선지와 부합하는지 체크하기

45번문제 자료제시형으로 나올경우 자료의 내용까지 확인하기,(24수능에서 이걸로 함정팠음) 웬만하면 선지가 진짜 확실하지 않으면 선지스킵 하지않기

본문 읽을때 자료와 연결하는거 생각하면서 문단에 번호붙이고 간단하게 요약해놓기  
(ex:1 문제제기, 2해결책 제시)

-문학-(소설 min 12m max 15m, 시 min 10m max 13m)

문풀순서:보기-제목-해당하는 문제

대원칙:

1.평가원의 오답선지 만드는 원리(선후,인과,주객,범주) 항상 체크하면서 선지 확인하기.

2.선지판단 중 이럴수도있지않나?-> 별표치고 넘기기. 정오판단 설불리 금률

3.표현상특징 무조건 먼저풀기: 사이즈보고 가능할때만

-핵심출제 요소-

1.인물/화자

2.갈등/사건

3.태도/반응/분위기

4.서술/표현상 특징

-관계파악

1.유사/상응/호응. 연결

2.대비/상반/이질. 구분

3.인과/범주/주체/선후

-세부내용일치(고난이도 문학문제)

1.생각지도못한 사소한부분 출제

2.지문1차독해(위의 핵심출제경향과

관계파악하며)/문제해결/지문2차독해(1차독해때 못잡은거 중심으로)

3.선지 간 비교-어려운 문학문제2개 선지남았을 때 선지끼리 저울질(x)/선지와 지문을 비교(o)

## 1. 고전소설 행동강령

1. 고전소설은 인물관계 및 사건양상이 매우 정형화되어 있다.(선악의 대립, 권선징악, 천상계주방 모티프, 가족내 갈등-여성의 질투나 모략 등, 군신의 갈등, 외세의 침입) 긍정적인물은 0, 부정적인물은 세모표 치면서 인물성격 파악하기
2. 고전소설 어렵게 낼때는 세부사항으로 출제한다.-고전시가와 유사. 인물이 어디에 있는지, 인물이 무엇을 바라보고있는지, 인물이 어떤 공간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인과)를 세세하게 파악해야 한다.(2609 33번 현대소설 선지2번)
3. 연계작품이 나왔을 경우 내가 아는 부분인지 파악하고, 사건양상과 인물성격을 대강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독해의 속도를 늘린다.-이때 무조건 확 읽어버리면 안됨-
4. 인물의 호칭이 바뀌는 경우가 잦다.(이대감, 이승상, 이시랑, 등등) 같은 성씨를 기준으로 펜으로 연결해가면서 놓치지 말자.
5. 보기와 연결해가면서 읽는건 기본이다. 보기의 중요한 내용이 머리에 들어와 있어야 함을 잊지 말자.

## 2. 현대소설 행동강령

1. 현대소설은 고전소설보다 인물이 훨씬 입체적이다. 현대소설은 인물의 심리에 공감하면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 최근에 현대소설에서 액자식구성이거나, 사건의 선후를 헷갈리게 선지를 구성하는 경향이 있다. 한 문단 안에서도 공간, 시간의 이동(과거에서 현재로 등) 잘 체크하기
3. 현대소설이 난해한 경우가 있다.(주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비유로 점철되어 있어서 읽었을 때 원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 경우, 내면심리가 고난이도로 나올 경우 우  
ex: 25년 3월 현대소설- 저당잡힌사내, 1409 광장) 이 경우에 핵심 주제(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핵심 소재)를 잡고 쭉 밀어읽자 같은 의미의 소재들을 체크하면서, 그렇게 읽다 보면 결국 비유가 다 걷히고 원관념(원 주제)가 드러나는 부분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
4. 현대소설에서 보통 서술상의 특징을 보기문제로 끌고 와서 어렵게 낼 가능성 있다. 서술상의 특징 문제도 인물 심리로 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인물의 심리와 반하는 선지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만약 그런 선지가 없다면 선지 끊어가면서 자세하게 파악하자.  
(현대소설에서 서술상 특징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정답률이 낮아진다. 이걸 뚫어내야 한다)
5. 보기 가 나열되어 있으면(표현법이) 케이스분류 해보기(케이스가 너무 많으면 넘버링이라도 해서 기억하기)-20수능, 24수능, 25수능
6. 서술상의 특징 문제가 평소와 같이 단독문제로 나왔을 때도 어려울 수 있다.  
(ex 24수능, 23수능 미스터방, 2503 교육청 저당잡힌사내)

## 3. 현대시 행동강령

1. 현대시는 보기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시를 읽을 때 보기에서 힌트를 주었다면 이를 시어들과 긴밀하게 연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2. 현대시 서술상의 특징 문제는 끊어서 무맞선 체크하고 확인하기 편한 선지들(표현이 겉으로 드러나는 선지들-색채어, 설의법, 대구법, 겉으로 드러난 청자 등) 먼저 지우기
3. 선지에서 내가 시를 읽을 때 하지 않은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거 같을 때 무조건 본문 돌아가서 확인한다. 내가 시를 읽으면서 하지 않은 생각은 보통 아무리

논리적이라도 분명 허점이 존재하고, 그것을 매력적인 오답으로 팔을 가능성이 높다.

4. 현대시에서 문학의 대원칙이 가장 중요하다. 주체와 객체 뒤바꾸기, 선후관계 뒤바꾸기, 인과관계 뒤섞어놓기, 범주(보기에 있는 단어, 본문에 있는 단어를 교묘하게 섞어서 선지를 빠르게 읽으면 낚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에 합치하지 않은 선지를 골라내는 감각을 최대한 예민하게 유지시키면서 저 4개의 기준안에 들어오는 선지가 있다면 자신 있게 찍고 넘어가자.

문학 기출분석으로 길러진 기시감을 믿자.

5. 주제가 자연물인 경우에 거의 대부분 인간, 현대인, 화자의 삶의 태도와 마지막에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시어 간 관계파악, 화자의 정서태도 잡기는 핵심이다.

6. 시가 방쌤이 알려주신대로 시각화가 안될 경우에 언어구조적으로 한번 읽어보자. 어미, 관계사 등 파악하여 정서태도 잡기.(연습: 25년 3월 교육청 현대시)

#### 4. 고전시가 및 수필 행동강령

1. 항상 어려운 시험은 수필의 난이도가 높았다. (24학년도 잊음을 논함, 25수능 편지, 2409문의당기) 고난도 수필을 읽을 때 철저하게 이분법적 사고를 장착할 필요가 있다. ★★★★★

2. 보기에서 힌트를 얻었다면 보기의 기준대로, 보기에 기준이 없다면 내가 읽으면서 찾은 보기에 따라 수많은 비유표현들을 철저하게 나누어야 한다. 이항대립 필수

3. 고전시가에서 만약 30줄 이상의 긴 시가가 나왔다면 무조건 세부사항을 물겠다는 것이다. 이를 읽을 때는 고전소설처럼 인물의 시각, 인물의 위치, 행동 등 세부사항을 자세하게 파악해 놓아야 평가원이 만드는 함정선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4. 수능시험은 한자시험 아니다. 모르는 단어 나왔더라도 그냥 대충 통치고 넘어가는 능력도 분명 필요하다.

5. 고전시가는 보통 주제가 정형화되어 있다. (자연 좋아 임금 좋아) 주제가 단순하다는 것은 문제풀 때, 시 읽을 때 엄청난 장점이 된다. 대강 그쪽이겠지 하고 읽다가 만약에 아니면 수정하면 되는 거고, 맞으면 독해 속도를 올릴 수 있다.

6. 기행가사 나왔을 때 여정-배경, 견문-주체, 감상-정서태도 체크하기

7. 화자가 관찰한 시적 대상

1) 원보조관념 주의하기

2) 사실적 vs 관념적 주의하기

8. 소설과 마찬가지로 한문단 내에서 배경 끊어서 읽는 습관 들이기.

9. 현대소설 고난이도 읽을 때 랑 마찬가지로 밀어읽기, 불여읽기 습관들이기 해서 원관념 찾아내기

-독서-(min 32 max 36)

-대원칙-

무조건 예시화 시각화 질문 불이면서 읽기 이 세 가지는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계속 시험 볼 때 이게 안되고 있는데, 의식하면서 해봐야 한다.

독서 영역 풀 때 선지판단이 느려지고 계속 스킵이 안되면 내가 고른 선지가 왜 맞을 수밖에 없는지 간단하게 써놓거나 선지 자체에 표시해 두기

7:3원칙 고수하기 (지문 7:선지3)

-독서는 행동강령이 더 중요하다-

1. 독서론: 무조건 다 맞춰야 함 (최소 4분 최대 5분 까지도 투자)

2. 너무 지문이 어려울 경우(시각화 예시화 질문붙여도 이해 안될 때) 옆에 메모해 놓고, 최대한 관계파악하면서 붙여읽기라고 하기
3. 법지문 나오면 가장 기초적이고 쉬운 예시(ex 채권과 채무일 경우 돈갚기로 / 형법일 경우 누구를 때리거나 훔친 경우로)로 예시화해서 먼저 용어들 머리에 집어 넣고 뒤에 나올 때마다 계속 그 예시 대입하면서 이해하기
4. 경제지문 나오면 일단 단어뜻 먼저 다시 상기시키기, 관계파악이 핵심임 뒤에 예시가 안나올 수도 있으니 간단하게라도 예시화하기 (물가: 초콜릿 가격 / 물가가 상승할 경우: 초콜릿이 1000원 오르면 등)
- 4-1. 만약 사칙연산이 줄글로 제시될 경우 일단 옆에 수식으로 써놓기 그 후에 왜 이런 공식이 도출되었는지 알 수 있다면 생각해보기- 위에서 개념정의 한 것들로 생각하기
5. 논리학지문 처음에 예시화를 시도해보려고 노력하기(되면 좋은데 안될 가능성이 더 큼) 안될 경우 어차피 뒤에 예시를 제시해줄 테니 일단 붙여서 읽으면서 기본적인 것들 (ex 전건, 후건 같은 게 나오면 p이다, q이다. 굴은 맛있다 등 과거 기출문제 제시문들 중 예시 가져오기)// 그리고 예시가 등장하면 위에 나온 이론과 무조건 연결하기.
6. 과학기술지문 나오면 무조건 시각화가 핵심(요즘에는 생명이나 기술지문이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더더욱)
7. 만약 생명지문 나오면 정말 유치해도 상관 없으니 그냥 일단 무작정 시각화 및 표상 옆에 그려보기. 기술지문도 마찬가지(만약 예시화가 잘못되면?-조교님께 질문했음:
8. 과학기술은 용어가 정말 생소하기 때문에 다 기억하려고 했다가는 머리 깨진다. 일단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만 머리에 담고 생소한 이름들은 밑줄을 그어 놓은 뒤 문제에서 물어보면 그때 돌아오자.
9. 기술의 작동원리(순서) 혹은 생명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생명반응과 같이 진행순서가 머리에 들어오는 것이 핵심이다.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시각화한 것을 토대로 적용해보기
10. 시각화 실패했을 때는 단어들 간 관계파악 및 언어적인 것들로 최대한 연결하면서 읽어나가기 그리고 이 경우에는 보기 문제는 버릴 생각을 해야 한다.
11. 인문지문 나왔을 때는 예시화와 질문붙이면서 읽는 게 가장 중요하다. 각 사상가별로 비교하는 문제가 분명히 나올 텐데, 독해에서 공/자 파악이 끝나는 게 이상적이다
12. 만약 자유주의 이런 학파의 이름이 나올 경우에는 그 학파가 주장하는 주장을 이름과 연결해서 이해해보기
13. 그냥 개인들의 이름이 나올 경우에 무조건 위의 사상가와 비교하면서 읽기.(아 얘는 재랑 여기서 차이점이 보이는구나 여기서 공통점이 보이는구나)
14. 무조건 —의 이유 혹은 원인 묻는 문제 나올 경우 주관식으로 풀기
15. 선지를 끊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특히 인문지문에서 사상가들끼리 비판하는 문제일 경우 주체, 객체, 술어까지(상충한다, 상충하지 않는다, 이중부정 등)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선지를 끊는 습관이 필수이다.
16. 그 뉴스는 보기 가 나오고 사상가가 이에 대해 긍정할지 부정할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경우 옆에 사상가 이름 쓰고 o,x 표하면서 파악해 놓고 선지를 본다. 만약 답이 없어서 내가 잘못 판단했다는 걸 깨닫게 되면, 빠르게 다시 한번 본문 훑고 다시 정오 판단해본다.

